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환자 걱정 문 ☎ (063) 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음 9월 20일) 제166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 288-9700



19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10회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잡고 있다.

**‘독도는 우리땅’  
온 천하에 고한다**

대한민국독도음악회  
22일 소리문화전당서

‘대한민국이 하나되는 2016 대한민국독도음악회’(대회장 김종춘)가 오는 22일 오후 7시, 전주 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가 주관하고, 전라북도, 한국예총전북지회, KBS 전주방송이 후원한다.

이날 행사는 일본의 치밀한 야욕과 계획 속에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의 방위백서에 기재함은 물론, 교과서에 실어 독도의 주인이 대한민국임을 만 천하에 천명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날 지휘와 연출은 지난 해 대한민국 신지식인상(작곡부문)을 수상 한 바 있는 김삼곤(사) 대한민국독도이사장이, (전) 소리축제 총 감독을 역임한, 김정수 전주대학교수가 연출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일본의 치밀한 야욕과 계획 속에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의 방위백서에 기재함은 물론, 교과서에 실어 독도의 주인이 대한민국임을 만 천하에 천명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날 지휘와 연출은 지난 해 대한민국 신지식인상(작곡부문)을 수상 한 바 있는 김삼곤(사) 대한민국독도이사장이, (전) 소리축제 총 감독을 역임한, 김정수 전주대학교수가 연출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일본의 치밀한 야욕과 계획 속에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의 방위백서에 기재함은 물론, 교과서에 실어 독도의 주인이 대한민국임을 만 천하에 천명하기 위해 실시된다.

## 전라도 1000년... 상생발전 기틀 다지기

전북과 광주, 전남 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호남권 상생발전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 10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존 협력과제와 전라도 천년 기념 발굴사업 등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정책협의회 협력사업으로 열리는 ‘호남권 관광활성화 컨퍼런스’와 함께 마련되었으며, 11개 협력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18년 전라도 명명 천년을 맞이하여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발굴 현황과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광주·전남 등 시도지사들,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 공동 대응 등 11개 과제 해결 힘 모을 것”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2004년 구성돼 일시 중단되었다 민선 6기 들어 2014년 전북에서 재개된 뒤, 연 2회 전북, 광주, 전남 순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그동안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교통,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과제를 발굴·추진 중으로 ▲서해안 철도 건설 공동 대응, ▲호남권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 ▲시·도립 공연예술단 교류,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전라도 천년기념 사업 공동 추진,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시 호남·전라선 증편 공동 대응, ▲해외

호남향우들과의 소통 강화, ▲광주사랑 봉사단 국제행사 등 활용, ▲탄소섬유 CNG용기 사내버스 보급 협력,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 등 11개 과제에 대해 힘을 모아 호남권 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하고 있다.

해외 호남향우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서울에서만 개최되던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행사를 올해부터 3개 시·도가 협력해 내년에는 전북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교류와 공연예술단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시 호남·전라선 증편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특히, 호남권 3개 시·도와 전북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발굴? 추진을 계기로 상생과 연대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발굴된 ▲전라도 천년 정사(正史) 편찬, ▲천년 문화유산 복원, ▲전라도 이미지 개선 및 홍보물 제작, ▲천년 기념 학술대회 및 특별 전시회 개최, ▲전라도 천년 기념식 개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지정, ▲전라도 천년 기념

상품 개발, ▲전라 밀레니엄파크 조성, ▲천년 랜드마크 조성, ▲백두대간·호남정맥 생태관광 추진, ▲천년 역사 문화관광 활성화 등 11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이 보고됐다.

특히 전북, 광주, 전남 3개 시·도는 발굴사업에 대한 세부검토와 재원대책,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휴수동행(携手同行),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자”며, “우리 호남권 3개 시·도가 이렇게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하다 보면 시·도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호남을 만들 수 있으니, 함께 호남권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더민주-민주당 공식 합당... 약칭은 ‘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원외 민주당이 19일 공식 합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출범으로 잃었던 ‘민주당’ 당명을 약칭으로나마 약 2년7개월만에 되찾았다. (관련사진 3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원외 민주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위에서는 약칭은 더민주와 민주당을 병기하되, 대외적으로 민주당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으로 결정했다. 영문명은

‘Democratic Party’로 정했다. 두 당의 통합은 50여일만에 성사됐다. 지난달 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만나 통합 가능성을 언급했다. 두 사람은 이후 한 차례 더 회동해 합당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통합을 발표했다. 이날 의결로 더불어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2년 7개월만에 ‘민주당’ 이름을 회복하게 됐다. /뉴스스

### 기업과 기업간 농수산물식품 수출 상담회

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연계... 오늘부터 이틀간

‘2016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연계한 농수산물 B2B(기업과 기업 간 상거래) 수출 상담회가 20~21일 이틀 간 엑스포 행사장 내 비즈니스관에서 열린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B2B 농식품 수출 상담회는 중국과 미국, 일본, 동남아 등 19개국 90명의 해외 바이어와 30명의 국내 바이어 등 총 120명의 농식품 바이어를 비롯해 도내 50여개

농식품 기업이 참석,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B2B 수출 상담회는 농식품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40여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바이어 중 독일과 아르헨티나 등 5명의 바이어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해외자문위원에 위촉돼 발효식품엑스포 홍보와

바이어 유치, 해외 네트워크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물국장은 “농수산물 B2B 수출 상담회를 통해 도내 우수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통상 전문 통역사와 상담 진행요원을 배치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20~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고민형 기자

#### ▶ 매일 INDEX

3면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유치

5면 유네스코 창의도시들, 전주에

6면 금융복지상담소 빈곤 탈출구

12면 브릿팝의 거장, 다류영화로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달합니다!

## 제2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기간 2016. 11. 04. (금) ~ 06. (일) 3일간  
장소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

주관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추진위원회 Tel: (063) 320-2841~2